나를 버리면 오히려 성공

자성은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스스로 갖춰가지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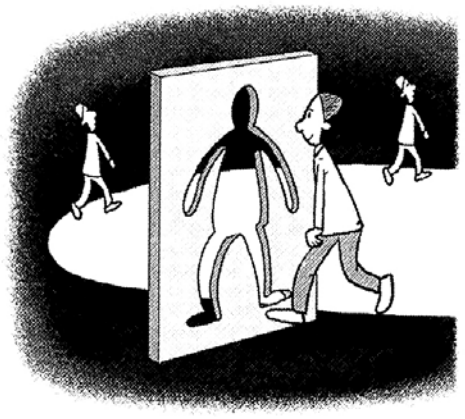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당신 있는 그 자리가 극락

한생각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순간 순간 극락도 지옥도 돼

☞ 29면에서 계속

그런데 사람으로만, 생명으로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생명체 에너지로도 태어나는 겁니다. 어떠한 돌이든지 흙 속에 묻혔든지 어떠한 나무 속에 묻혔든지 각각 모두 그것이 에너지로다가 화해서 생명들이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고자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한생각이라는 것이 유전공학으로서의 물질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연구한 자체도 없으면서 진화되고 바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진화력을 가지고 우리가 찰나찰나 진화되는 것을 바로 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만이 윤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24시간 살아나가는 데도 찰나찰나 고정된 관념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지금도 우리가 순간순간 윤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버려야 하는지…

문 깨달음을 얻으신 선지식들은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공부를 하셔서 도를 얻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 모든 것을 버려야만 공부가 되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으면 스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닦아나가는 마음공부를 통해서도 그러한 경지에 도달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 어떤 사람은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 몸은 생각지 마라 이러기도 하는데 그런 점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로 공부하는 사람은 한번 미쳤다는 소리 듣지 않고는 못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산으로 다니면서 공부할 때 넓은 길이 길이 아니라 갈대가 많고 온통 그냥 돌수덕 다리인 그런 데가 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 속에 스승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두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대로가 있는데 길이 아닌 데를 길이라고 하면 그거 믿겠어요? 그러나 믿든 안 믿든 그대로 나를 내버렸다면, 내가 죽었는데 무슨 말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내버렸다면, 진짜로 내버렸다면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무슨 상관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갔죠. 그러니까 온 몸이 다 찢어지고 벗겨지고 그래서 피가 나고 그러는데도 하나도 생각이 움죽거리지지 않아요. 날 버렸기 때문이죠. 버리려면 아예 그렇게 버리고 안 버리고도 지금 현재의 여러분은 고정됨이 없다 하는 거를 알게 되면 그대로 거기 놓고 '나는 내가 아니고 내 주인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생각을 하고 다 놓으면 그것도 죽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모르고 그랬지만 나중엔 그렇게 해도 죽는 거고 저렇게 해도 죽는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밤에 따뜻하게 잤는지 모릅니다. 가다가 길이 막혔는데 천야만야한 데를 한발 내려 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버렸기 때문에 뭐 죽고 사는 거를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발짝 턱 내디뎠더니만 뭐 빙글빙글 돌아서 떨어진다는 게 나뭇단 있죠? 예전에는 나뭇단을 묶어서 산 밑에다가 쌓아놓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게 쌓여져 있는 데에 퍵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떨어지고 어이가 없어서 엉금엉금 기어 내려와서 생각을 하니까 '아하, 고마워! 나무 한 단 빼놓고 그 속에서 자라고 그랬구나! 참 이렇게 신기한 법이 어디 있는가. 내 몸은 모두 너의 시자일 뿐이야. 시자를 따뜻하게 자라고 이렇게 했구나.' 하고 나무를 하나 빼고선 들어가니까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나를 버리면 성공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여러분이 자기가 함이 없이 지금 연기법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 자체가 그걸 알지를 못해요. 살아오던 집착과 번뇌라고 할까 그것이 그냥 그대로 꽁지가 꽁지를 물고 꽁지가 꽁지를 물고 연결되어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 속에서. 그렇게 연결해서 돌아가더라도 내가 아주 죽었다면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버렸다면 말입니다. 내가 버려서 버리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버려지고 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미!

그래서 어느 때든지 어디 가서든지 항상 하는 말이 "고정되게 볼 수 있느냐? 고정되게 듣고 있느냐? 고정되게 움죽거리느냐? 아버지 노릇만 하느냐? 어머니 노릇만 하느냐? 남편 노릇도 하고 아들 노릇도 하고 형 노릇도 하고 아우 노릇도 하고 이러지 않느냐? 그러니 그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지 않느냐"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니까 뭐 아주 자동적으로 '그래' 하고 대답을 하고 맞아들이는 그 아버지가 자기겠습니까? '여보' 하면 남편으로서 대하는 그 남편이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깐 그대로 여러분은 연기법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연기의 공법을 그대로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버렸다 취했다 하는 것도 고정돼 있는 법이 아니고 찰나찰나로 돌아가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일 뿐입니다. 뭐가 붙어 있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버려서 잘하는 것도 아닌, 본래 그렇게 따로따로 나누지 않는 것인 줄을 아셔야 합니다.

극락세계는 실존하는지…

문 지성으로 삼배 올리오며 질문드리옵니다. 극락세계는 실존하는 세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스님 설법에 "지옥, 극락이 따로 있다고 생각지 말라, 현실세계에 모두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경에는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으로 이루어 놓은 세계로, 엄연히 영계가 실존하는 세계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법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영계에 대하여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극락세계가 어디 먼 곳에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바로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한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순간 극락에 갔다가 순간 또 지옥에 간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상세계에서 감옥살이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마음이 지옥이겠습니까?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지옥일 테며, 갇혀있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지옥이 어디 멀리만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지옥이 없습니까? 뭐 다른 데 가서 보지 마세요. 자기 마음이 잘못해 가지고 자기 육신을 얼마나 고생을 시킵니까?

저승이 멀고 가깝고가 없습니다. 윗눈썹하고 아랫눈썹하고 깜짝거리는 거와 같이 바로 저승과 이승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승과 이승을 까맣게 모두 생각을 안하니깐 멀다고 하는 겁니다. 지옥과 극락도 멀게만 느껴지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에 보면 과거로 인해서 인연을 두고 고리를 걸어서 현실에 나오고 그것이 미래를 돌아서 현재가 또 과거가 되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주 삼세가 다 공해서 일체로 돌아간다고 하죠. 그러니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과거를 따지고 현재를 따지고 미래를 따지니까 문제가 생기고 걸려서 넘어져서 깨지고 아파서 울고 온통 고통을 겪지만 깨달아서 왕창 결정이 난 사람들은 삼세를 홀딱 다 그냥 껴안았으니까 걸려도 걸리는 것이 아니고 넘어져도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걸림이 없는 겁니다.

불성 어디서부터 왔는지

문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자성, 불성은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물질 세상에 젖은 우리들로는 인식하기 힘들겠지만 스님의 명쾌한 답을 부탁드리면서 삼배 올립니다.

답 예전에 오조 홍인 선사가 육조 스님이 행자였을 때에 삼경에 들라고 해서 찾아가니 금강경을 설해주셨는데 그 끄트머리에 육조 스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나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말이 아니라 뜻이 있습니다.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하는 말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성이 본래 생멸이 없는 줄을 어찌 알았으리까? 그 본래가 참 중요합니다. 자성이 스스로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자성이 움죽거림이 없이 만법을 들이고 내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이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나보다도 더 잘 아시니 그걸 듣고 뜻을 감지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들으시고 알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알고 있는 자성이 무엇인 줄을 모르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성은 어디서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왔다고 한다면 또 가야하는 것이 붙지 않겠습니까? 본래 스스로 갖추어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들이고 내는데 손색이 없고 여여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일체 다 알고 있죠. 잘못되고 잘된 걸 다 놔라 이랬습니다. '잘못되고 잘되고 좋고 나쁜 걸 아는 거를 다 놔라' 이런 것은 잘못되는 것도 나오고 잘되는 것도 나오고, 잘하는 것도 나오고 못하는 것도 나오고, 높은 것도 나오고 얕은 것도 나오고, 일체 평등하게 거기에서 그르고 옳은 게 다 나오니, 나오면 바로 나오는 대로 제깍 자기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또, 나오는 것도 알고 들이는 것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자성의 원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 싼대도 두루 할 수 있는 그런 광대무변한 자리입니다. 일체제불이 같이 하고 있고, 일체제불이 다 있는 자리에는 일체 중생이 다 같이 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말로만 듣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따로따로 이름은 있으되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고 네 가지고 종류가 한데 합쳐서 공존하고 있다 이겁니다, 공존하고 있어요. 눈과 귀가 따로따로 있으나 이름도 따로따로 있으나 눈 간 데 귀가 가고 귀 간 데 눈이 속해 가더라 이거예요. 또 무슨 시각이니 청각이니 감각이니 촉각이니 하는 것도 같이 혼합해서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척 보면 척 들아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을 하기 이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체의 자성, 아주 묘각이라고 할까요? 아주 묘해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마음을 좋게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좋게 해라, 꿈을 꿔서 언짢더라도 좋게 생각하고 놓으면 그대로 회전이 돼서 보이지 않는 50%에서 보이는 50%로 나온다. 나오니 그대로 믿고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 그 말하기 이전입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위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萬里四柱특강

- 변만리 선생 직강 및 약력
日刊 社會日報 주필, 月刊 陰陽과 韓方 社長
社會團體 韓國陰陽硏究會長
현대 삼성 대우 롯데 선경 두산 동부 삼미 등
국내외 은행 및 400여처에서 동양철학과 건강관리 강좌

만리사주의 좋은점

시중의 중국사주는 10년을 공부해도 미완성이고, 어렵기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주의 기본인 오행과 상생 상극을 글자대로 풀이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사주의 오행과 상생 상극, 격국과 신살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진리와 상생 위주로 사주와 운세를 종횡 무진으로 분석 판단하였습니다.

사주 공부가 어려우십니까? 만리사주를 배워보십시오.
40년 강의 경력과 노하우를 초보자도 알기 쉽고,
흥미진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매우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학문입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배워나간다면, 결코 어려운 학문은 아닙니다.

중요 목차 및 내용

- 육신 - 인물, 인격, 환경, 운명을 판단한다
- 왕쇠강약
- 부귀빈천의 사주
- 육친관계 보는법
- 궁합 보는 법
- 택일 하는 법
- 적성 직업 보는 법
- 인생의 대항로 대운 보는 법
- 12운성과 성격 보는 법
- 일년신수를 척척 보는 법
- 운명의 격동기 보는 법
- 당면문제 감정법 - 주택문제, 진학과 고시문제, 기억문제, 재판과 형사문제, 결혼과 이혼문제 외 다수

교재(5권) + 강의 테이프(총 60개) = 85만원
스님 및 포교사 할인판매 (만세력 프로그램 50% 할인 판매 함)
문 의 : **016-460-2378** (담당자 직통)
상세한 안내서와 견본테이프 무료 우송함
판매처 : 도서출판 **한국음양연구원**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기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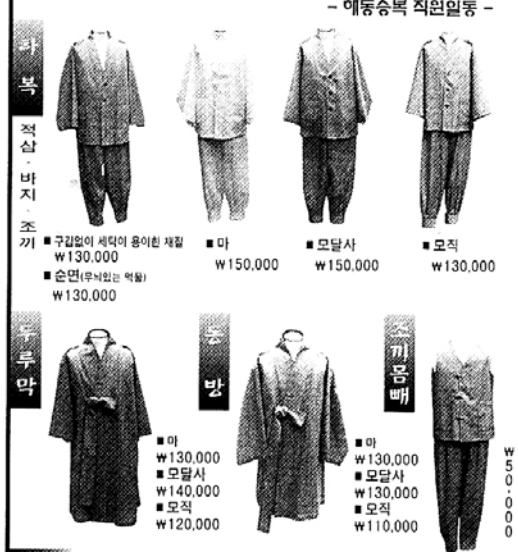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러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에동승복 직원일동 -



■ 구김없이 세탁이 용이한 재질 ₩130,000
■ 마 ₩150,000
■ 모달사 ₩150,000
■ 모직 ₩130,000
■ 순면(무늬있는 먹물) ₩130,000
■ 마 ₩130,000
■ 모달사 ₩140,000
■ 모직 ₩120,000
■ 마 ₩130,000
■ 모달사 ₩130,000
■ 모직 ₩110,000
₩50,000
※ 장삼, 가사, 백팔 및 기타 염주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중간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